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3월 3일 (제679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지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예배·위성·및·인터넷·생방송)



동 우 칼럼

올해 나의 목표

나는 올해 교단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목표를 따로 정했다. 첫째는 충분한 기도요, 둘째는 충분한 운동이요, 셋째는 충분한 휴식이다. 그것이 내 삶을 후회 없게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이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할 목사는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몸을 관리했다고 했다. 그 결과 지금 90세가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도 60이 넘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땀 흘린 스के줄 때문에 나를 쫓기는 건 항상 뒷전이었다. 늘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성도들에게 설교했지만, 대장간 집에 식칼이 녹는다고 했던가. 정작 내 자신의 건강에는 소홀했다. 그러다 올해 후회 없는 삶이란 명제를 나에게 던져보았더니, 그 초석은 바로 건강한 육체에 있음을 깨달았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것 아닌가.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충분한 기도로 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충분히 운동하여 건강을 찾고, 충분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내 인생의 장기전에 돌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즘 가까운 산도 다니고, 휘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도 한다. 그리고 과로,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누가 그랬다. 100세 전에 죽는 것은 자살이라고. 자살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자기 관리', 자기에게 집중하여 자기의 상태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경영은 관리요, 관리란 점진적인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우리 함께 무병장수미약한 삶을 누리자.

이 나라를 살리러 왔다

성도들의 전폭적인 합심기도를 안고 도착한 과테말라(Guatemala).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힘겹게 내려다본 과테말라의 모습은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국의 6, 70년대에 보면 판자촌들이 산악지대 곳곳에 계곡을 따라 즐비했다. 인구 1,400만 중에 900만이 인디언, 수도에 400만이 몰려 살고 있다고 한다. 국민 60% 이상이 문맹상태이고 빈부의 차도 극심하다. 오랜 군부독재와 이에 대항하는 게릴라 세력과의 30년 내전으로 고통 받던 과테말라는 90년대 중반, 민주정부와의 휴전 성립으로 새로운 도약의

의지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에 힘쓰자면, 이 나라도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고속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30년 내에 눈부신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숙소로 도착하니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최고의 호텔에 최고의 룸으로 준비해놓고 있었다. 목사님은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청의 밀톤(Milton) 목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환대에는 깊이 감사하지만, 나에게 이런 좋은 방은 필요 없습니다. 일반 룸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러자 밀톤 목사는 "과테말라 대통령

거들 촉구하셨다. 그런데 방송 후 과테말라에 주재하고 있는 코스타리카(Costa Rica) 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 대사라도 나가있었다는 페로난도(Feronando) 대사는 방송을 보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며 코스타리카에도 오셔서 집회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역시 가는 곳마다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튿날 아침 속개된 실업인 세미나에는 과테말라시의 많은 실업인들이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채, 목사님의 강의를 귀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 집회 광경

기반은 마련했다지만, 곳곳에 무장한 경찰 및 군인들의 모습이 말해주듯 여전히 불안한 치안상태가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민국 통과 전부터 정부관리가 나와 우리를 공항 VIP실로 안내했다. 목사님은 VIP실에서 영접하는 현지 목회자들, 정부 관리들에게 일성으로 "이 나라를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멕시코(Mexico)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멕시코는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이 나라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 아들이 모시는 겁니다. 과테말라 정부 차원에서 영접하는 것이니 패널리 마시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과테말라 대통령의 아들이자 현직 시장인 오토(Otto Perez Leal)는 숙소뿐 아니라 경찰 경호대와 차량,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체를 지원해주었다. 저녁에 마련한 현지 목회자들의 환영만찬에서 멕시코에서 온 베레니세(Berenice) 목사와 알바로(Alvaro) 목사, 그리고 집회 주관자인 헤세(Jesse) 목사의 간증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관련기사 4면)

이튿날 아침 Canal 27 TV에 출연한 목사님은 방송을 통하여 집회 홍보에 박차를 가하시고, 과테말라의 변화와 성장을

를 기원했다.

"오늘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둘째는 온 국민의 교육 열풍이었습니다. 이 나라도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국민 교육에 매진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무딘 철연장을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각의 속도를 높여 부지런히 연구 노력하기 바랍니다. 교육 최우선주의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과테말라를 흔들고 있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 목사님의 믿음대로 이제 중남미의 빈국 과테말라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다음 주에 계속)



공항 VIP실로 영접한 정부관리 및 목회자들과 함께



집회를 적극 도운 과테말라 대통령 아들 부부



과테말라 실업인 세미나 광경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4:11~12)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사전에서 기독교인의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 곧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2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왜 본문 서두에 꺼냈는가 하면, 요즘 신천지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식을 접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울교회 담임인 이시대 목사가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그들의 교리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섬기는 이 아무개가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가 예수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 그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라는 말씀을 들어대며, 예수가 보낸 사자가 곧 이 아무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천지를 통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부는 잡은 고기에 관심 없고 참새는 알곡이 많은 곳에 모인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란 이 아무개가 아니고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는 주의 종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됨이어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 곧 목사들을 일컫는 말씀이지,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시대 목사가 ‘당신들이 주장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곧 기록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 때 예수가 구원자였지만 그

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듯, 새 시대를 이끌 이 아무개의 이야기 또한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가 막힌 주장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교리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절대로 처음부터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양의 털을 쓴 이리처럼 천천히, 그리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에덴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꾀 때 어쨌든 지



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

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단도직입적

으로 물었습니까? No.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든?”이라고 슬쩍 둘러서 대화의 물고기를 엮습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이 이와 같은 수법을 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신천지로 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수법이 ‘성경공부하자’입니다. 사실 기독교인 대부분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이곳저곳 다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공부는 주일 예배, 수요일예배, 철야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이면 족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목사님이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쳐줄 것입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공교육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잘 들으세요.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성경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과 같은 기

독교의 여러 교파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 아무개를 믿는 다른 종교입니다. 다만 기독교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도, 성경도 우리와 같지만 분명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미혹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경고도 일찌감치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였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눅21:8).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하

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를

병들

게

하

고, 가

난하게 하

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일하게 기독교와 흡사한 종교가 계속 생기는 것도 수단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계책이지요.

그렇다면 악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는 악한 영들과 귀신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란 곧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완전무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곧 영적 전쟁이기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4-17). 위의 모든 것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 그 다음 절에 있듯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면 13절의 말씀처럼 악한 날에 능히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불법은 징계의 대상이다 법위에 짐을 지지 말라

힘쓰라고 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힘센 동물이라고 해도 무리 속으로 들어가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주위를 맴돌다가 혼자 떨어져 나온 놈을 발견하면 달려들어 그것을 물어버립니다. 악한 마귀도 그렇습니다. 혼자 믿을 생활하는 사람을 타깃 삼습니다. 뱀이 하와 혼자 있을 때 슬며시 다가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역에도 들어가고, 성가대나 안내위원, 헌금위원 등 교회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미혹이 다가올 때 조직 내의 동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미혹되려고 할 때 지켜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외줄보다 삼겹줄이 낫지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했습니다.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곡이라고 해도 참새에게 쪼이면 죽장이 되고 만다는 것과 죽장은 창고에 들이지 않고 불로 태워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눅3:17).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이 아무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문 아무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초석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고, 우리의 중보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딤후2:5).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천리로 생령입니다(요14:6). 할렐루야!

::객원컬럼::

의식의 선진화

미국 조지아(Georgia)주 애틀랜타(Atlanta)에 갔을 때 목격한 장면이다.

길변 집사람이 우리를 태우고 공학 근처 속도로 가는 길이었다. 교통량에 비해 워낙 도로가 넓게 풀려있어서 차량들은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속력을 줄이더니 멈춰 섰다. 무슨 일인가 앞을 보니 왕복 차선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멈춰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고가 난 것 같지는 않았고, 경찰이나 긴급 911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앞에 스쿨버스가 정차 중이라. 멀리 노란 스쿨버스 옆으로 오른쪽을 보니 스쿨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학교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스쿨버스는 도로 우편 끝에 바짝 정차하고 있으니 왼편 안쪽 차선으로는 차가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을 터였다. 그러나 미국 교통법이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무조건 뒤따르던 차량은 멈춰야 한다는.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었다. 중앙분리대가 넓게 조성되어 있어 반대편 차선은 그야말로 스쿨버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도 차량들은 스쿨버스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모두 멈춰있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었다. 우리 현실에 참으로 딴 세상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학원차량사고로 생명을 잃는 우리 아이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이런 장면이 더욱 부럽기만 하다.

미국 교통법에 저런 원칙이 자리 잡기까지 미국인들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을까? 20세기 초 영국의 실상을

그런 소설들을 보면 당시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알다시피 선진국들이 여성참정권이나 아동보호에 대한 고려를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도 무지하고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더 나은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오늘의 저러한 선진국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란 것이 그리 빨리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총기사고로 1년에 4만여 명이 사망한다는 미국에서 여전히 총기소지법이 굳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얼마 전 코네티컷(Connecticut) 초등학교의 총기난사로 많은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서야 집권 민주당에서 총기소지 규제 법안을 제출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생명을 무고하게 잃고 나서 얻게 된 사회의식의 변화라 하겠다.

우리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우뚝 서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서운 노력과 잠재력으로 오늘에 서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모델로 삼아 닮으려했던 선진국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수백 년을 경험해야 얻을 수 있는 사회가치들을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서 배워온 것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에 거치는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 제도가 정착하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피

부로 느끼게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가야 할 사회가치들이 많다. 정치적 민주화는 많이 진전되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노인이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및 복지의식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것이 힘에 의해 억압되고, 토론보다 목소리 큰 힘에 좌우하는 현실들을 만난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세계적 기업을 길러내고 먹고 살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이 건강한 보수 의식을 가진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길이며 애국심을 고취시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미국 시민들이 스쿨버스가 정차해있는 반대편 차선에서는 달려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미국 시민들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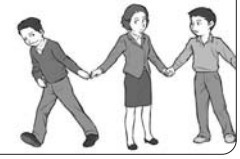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발전해가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라고 찬송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기대가 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국가 발전 및 사회의식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울지 않겠는가.

한은택 전도사

레미

동행

여러울 때 친구도



가죽도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49:15)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JC Academy series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자

지난 20일, 젊은이를 위한 JC 아카데미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 이시대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가 이어졌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해산에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근성에 젖어 있던 그들을 내외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지만 주일에 본 고(故) 박용국 목사님의 지옥 간증에서처럼, 예수를 만나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그 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이 곳, 즉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나오 거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만 붙잡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당시에는 변제, 소제, 화목제 등과 같은 6가지 제사(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우리 또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교회 내 여러 조직을 기반으로 탄탄한 신앙생활을 하여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국진 기자



귀를 기울이세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주일을 맞게 되어 근처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가셨습니

다. 총회장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중심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살아 움직이는 복음 전도사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서

신재식 전도사



왼쪽부터 베레니세 목사, 알바로 목사, 헤세 목사



목회자들의 간증은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집회는 한 멕시코(Mexico) 목사의 기도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이름은 베레니세(Berenice Priego Lopez). 지난 해 멕시코 마쿠스파나(Macupana) 집회를 주관했던 목사이다. 그는 그 집회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각종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에서는 소름이 끼쳐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당시 목사님은 교회 앞마당에 진을 치고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레니세 목사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즉시로 장사꾼들을 내몰고 시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깨달음과 순종을 보시고 교회를 배가 시켜주셨고, 다른 교회,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멕시코 집회에 참석했던 과테말라시티의 헤세(Jesse) 목사가 찾아와 목사님을 과테말라로 모시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목사님과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회를 위해 적극 도왔다.

헤세 목사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아무 경험이 없는 고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다. 그리고 주위의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너도 나도 돕겠다던 목회자들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하나 둘씩 뒤로 빠져버렸다. 돈 때문이었다. 실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다 떠나도 이 집회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바로 집회 사흘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현지 대통령의

중남미를 예수중심으로 이끌어봅시다

아들이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집회 장소 제공은 물론 목사님과 일행의 숙소, 음식, 차량, 경호까지 일체를 지원해주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니 아닥사스다 왕이 나서서 적극 도와준 것과 동일한 역사였다(느헤미야 1-2장).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타디움 집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침, 저녁으로, 어디를 가나 그 음성이 떠나지 않았다. 주위 목회자들에게 이 계획을 말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며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시장을 만나고 그를 통해 축구장을 빌렸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이 큰 축구장에서 누가 설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울며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죽자 사자 열심히 이번 집회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바보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고 더욱 열심히 집회를 준비했다. 기도 중에 하늘의 불이 오르내리락했고 목발을 던지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는 울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목사님은 그를 포옹하며 ‘이런 사람이 있기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들의 감동적인 간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레니세 목사는 끝으로 말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나아가갈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번 집회에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믿고 집회를 준비해준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와주신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돈도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은 헤세 목사와 베레니세 목사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같은 목사가 있었으면 이 나라뿐 아니라 중남미 전체를 복음화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베레니세 목사가 말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봐도 안 되고, 명예를 얻으려 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소림만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이번 집회에 이 나라 권력자들이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행체가 되어 이 중남미를 살려봅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 삶을 바치기로 작정한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경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외국어영역(영어) 학습법

::Edu Section::

새 학기가 다가온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각 과목의 학습법을 생각해보고 성적 관리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듯이 닦치는 대로 하는 공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입시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끈기와 인내와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주력해야 한다.

새 학기를 맞이한 고3 입시생들을 자주 만난다.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영어와 수학, 국어이다. 미리 준비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다. 마음이 급한 그들은 남은 10개월 동안 원하는 성적을 얻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사실을 알고 때 늦은 후회를 한다. 그들처럼 고3이 되어 급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법을 알아보자.

혹자는 영어는 회화를 잘하면 된다고 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입시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가 있다. 입시 영어는 듣기, 쓰기, 어휘, 문법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유기체적인 과목이다. 먼저 어휘 학습에 시간과 노력을 부단히 투자해야 한다. 보통 단어 외우기라고 알려진 어휘 학습은 종이와 연필을 들고 암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열심히 눈과 입을 움직여야 할 부분이 어휘 학습이다. 어휘 책 한권을 정한 후 읽기를 반복하면서 어휘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점수를 올리기 쉬운 듣기는 대본을 참고하면서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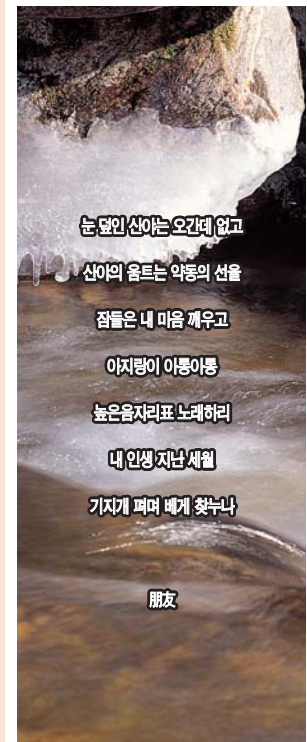
이처럼 부지런한 반복 학습이 요구되는 것이 어휘와 듣기 영역이라면, 독해는 차분하게 읽는 정독과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속독을 동시에 연습해야 한다. 입시에 출제되는 독해 지문은 통합 교과 형태의 지문으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역사, 예술, 철학 등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독해 지문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엔 전 과목에 대한 꾸준한 학습을 병행하여 영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의 과정 없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법은 입시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간혹 문법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 그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문법은 반드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어를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활용하고 학습하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 가지씩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필요의 선두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입시 준비는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학원장 오지유 집사



눈 덮인 산아는 오고갈 없고

산아의 울트는 약동의 선을

점들은 내 마음 깨우고

아지랑이 이물리물

높은음자리표 노래하리

내 인생 지난세월

가장가며 떠돌아 찾느니라

朋友